Global Market Report 19-049

2019 국별 진출전략

과테말라

kotra

CONTENTS

2019 과테말라 진출전략

Ⅰ.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4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
가. 한-중미 FTA 본격 발효 및 과테말라 재참여 협상 개시 ····· 4
나. 중미관세동맹, 중미 북부 3개국으로 확대 출범 ····· 5
다. 2020-2024년 임기 대선·총선·지방선거 실시 ····· 5
라. 미국의 중미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정책 지속 ····· 6
마.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정식 역외회원국 가입 ····· 6
바. 중미·카리브지역의 脫대만·親중국화 물결 가속화 ····· 7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9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9
2. 시장분석 ····· 16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6
나. 수출 ····· 17
다. 투자진출 ····· 21
라. 프로젝트 ····· 23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의제 ····· 25
가. 교역 ····· 25
나. 투자 ····· 27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9

Ⅲ. 진출전략 ····· 30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30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31
3. 한-중미(과테말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35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 38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 40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41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43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주요 경제지표는 건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해외 가족송금 유입 증가, 소비자 물가 안정에 힘입어 전반적 경제 상황은 양호 전망(GDP 3.5%, 인플레이션 3.7% 전망)

- 한편 美이민자들의 가족송금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고용지표나 반이민정책 향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분명

□ 한편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공공분야 투자, 지출은 크게 위축될 전망

○ 2019년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으로 인프라 투자 등 공공지출 축소 불가피

○ 2018년 4월 촉발된 니카라과 정치위기로 미국발 의류 발주 증가와 같은 반사 이익이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로 중미지역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 우려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 구	백만 명	15.3	15.9	16.3	16.6	16.9	17.2	17.6
명목 GDP	십억 달러	50.4	58.7	63.8	68.6	75.6	80.1	84.0
1인당 명목GDP	달러	3,300	3,687	3,923	4,140	4,469	4,647	4,781
실질성장률	%	3.0	4.2	4.1	3.1	2.8	2.8	3.5
실업률(ILO추산)주1)	%(노동인구대비)	2.87	2.91	2.70	2.83	2.74	n/a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n/a	3.4	2.4	4.4	4.4	3.8	3.9
재정수지(GDP대비)	%	n/a	-4.8	-3.6	-3.2	-3.5	-3.3	-3.1
총수출주4)	백만 달러	9,987.54	10,032.96	10,731.27	10,447.23	10,993.07	5,579.10(상)	n/a
(對韓 수출주4)	〃	53.08	151.50	114.49	123.10	98.58	45,44(상)	n/a
총수입주4)	〃	16,991.00	18,278.17	17,639.54	17,000.89	18,387.68	9,603.21(상)	n/a
(對韓 수입)주4)	〃	427.23	440.00	433.76	321.27	306.20	148.03(상)	n/a
무 역 수 지주4)	백만 달러	-7,003.46	-8,245.21	-6,908.27	-6,553.66	-7,394.61	-4,024.12(상)	n/a
경 상 수 지	십억 달러	n/a	-1.5	-0.7	0.1	0.3	0.1	-0.3
환율(연평균)	현지국/US$	7.89	7.73	7.66	7.60	7.35	7.46	7.58
외국인직접투자주2)	억 달러	12.45	13.89	12.21	11.85	11.47	2.93주3)	n/a

주: 주1)Worldbank Indicator, 주2)과테말라중앙은행, 주3)2018. 1분기 누계 기준, 주4)GTA(2018. 11월 조회 기준)
자료원: IHS MARKIT(2018. 11월)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한-중미 FTA 정식 발효 및 과테말라의 재참여 협상 개시
- 중미관세동맹,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로 확대 출범
- 2020-2024년 임기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 실시
- 美행정부의 중미 불법이민자 단속 정책 강화 방침 지속 전망
- 중미 최대 M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역외회원국 정식 가입 예정

가. 한-중미 FTA 본격 발효 및 과테말라 재참여 협상 개시

□ 과테말라 제외 중미 5개국, 2019년 한-중미 FTA 정식 발효 예정

○ 엘살바도르, 중미국 중 가장 먼저 국회 비준동의안 만장일치 통과(2018. 6월)

- 한-중미 5개국 통상장관 정식서명 행사(2018. 2월) 이후 4개월 만의 신속한 조치로, 국회 비준까지 진행하는 등 발 빠른 행보

* 협정문 상 한국 측 국회 비준만 통과되면 한-중미 FTA는 즉시 발효(국별 효력은 상이)

□ 과테말라, 한-중미 FTA 재참여에 큰 관심 표명

○ 중미 최대시장인 과테말라는 일부 산업계(철강, 제지, 신발, 음료 등)의 반대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가서명식(2017. 3월)에 불참, 협상이 결렬된 상태

○ 과테말라 정부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 반대하는 산업계를 설득하는 한편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 한편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공업회의소(Camara de Industria) 측은 여전히 FTA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 이들이 재협상의 큰 걸림돌이 될 전망

○ 과테말라 경제부, 외교부 차관 등 고위인사들이 9월 한국에 직접 방문, 우리 정부에 재협상을 공식 요청하는 등 협상단의 태도에도 유의미한 변화도 감지

〈 한-중미(6개국) FTA 추진 경과 〉

ㅇ 한-SICA 정상회담 시 한-중미 FTA의제 논의(2010.6월)
ㅇ 한-중미 FTA 공동연구 실시(2010.10월-2011.5월)
ㅇ 한-중미 FTA 협상개시 선언(2015.6월 VIP 방미 시)
ㅇ 한-중미 FTA 협상 진행(2015.9월-2016.10월, 총 9차례)
ㅇ 한-중미6개국, FTA 협상 실질 타결 발표(2016.11월)
ㅇ 한-중미5개국(과테말라 불참)간 가서명 완료(2017.3.10)
ㅇ 한-중미FTA 정식서명(2018.2.2.1) 및 엘살바도르 국회 비준(2018.6.21)

나. 중미관세동맹, 중미 북부 3개국으로 확대 출범

□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발효 계기로 중미경제통합 발판 마련

○ 실질적 세관전산망 통합, 관련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면서 중미 최초의 과테말라-온두라스간 관세동맹(세관통합) 정식 발효(2017. 6월)

- 중미 공동시장의 탄생과 동시에 경제통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 내포
- 특히 양국 간 재화 이동이 자유화됨과 동시에 온라인 통관시스템 적용으로 세관 절차 대폭 간소화

  * 수출신고서류를 단일화·온라인화한 문서인 FyDUCA(Formato de la Factura y Declaracion Unica Centroamericana) 전격 시행

□ 엘살바도르, 과·온 관세동맹 편입 협상 타결(2018.5월)

○ 엘살바도르 정부, 관세동맹 합류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중미 3국 관세동맹 출범 공식화(2018. 8월)

- 엘살바도르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2018. 6월), 3국 El Corinto 정상회담(8월) 등 절차 신속히 진행

○ 중미 북부 관세동맹 본격화 시, 인적교류, 상품교역, 조세분야 큰 성과 기대

- 특히 이민절차 간소화, 3국간 상품교역 무관세 일괄 적용, 온라인 단일통관문서 FyDUCA 확산 등으로 회원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

다. 2020-2024년 임기 대선·총선·지방선거 실시

□ 2019년 상반기 차기 대통령·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대선 레이스에 돌입

○ 대선(부통령 선거 포함)은 6월,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것으로 예상

- 각 정당별로 후보자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뗄마 알다나(Thelma Aldana) 前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

  * UN산하기구인 과테말라반면책특위(CICIG)와 함께 주요 정치거물의 비리를 밝히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국민적 지지도가 여전히 높은 유력 인사

○ 기타 각종 선출직을 뽑은 다양한 선거들이 동시 진행될 예정

-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120석), 중미의회(PARLACEN) 선거(20석), 각종 지자체 단체장 선거(340석) 등이 대선과 함께 동시 진행

  * 과테말라는 모든 선출직이 4년제로 운영(대통령은 4년 단임제)

라. 미국의 중미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정책 지속

□ 불법 이민 무관용·미성년자녀 분리수용 新정책,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

○ 트럼프 美행정부, 2018년 4월부 '불법이민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 시행

- 同정책에 의거 美국경을 불법 월경하는 모든 밀입국자는 무조건 형사기소 처리

  * 기존 정책은 단순밀입국(추방)과 망명신청(실사)으로 이원화하여 밀입국자를 처리

- 문제는 구치소에 감금되는 기간 동안 18세 미만 미성년은 연방 감옥 수감이 불가,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게 되면서 全세계적 비난 여론에 직면

  * 심지어는 영유아까지 부모와 격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도적 관점에서 비난 폭발

○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 여론을 의식, 이민가족 강제 격리를 전격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일단락(2018. 6월)

□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불법이민자 추방·무관용 정책은 유지될 전망

○ 국제이주기구(OIM)는 미국 및 멕시코로부터 추방된 과테말라인이 2018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고 발표

- 美불법이민자의 절대 다수가 중미 북부 3국 출신이고 이들의 송금이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부정적 여파 불가피

○ 2018. 10월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수천명 규모의 중미 캐러밴(Caravana de Migrantes Centroamericanos)이 미주지역 대형 이슈로 부상

-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국 원조 중단 경고와 함께 불법이민자 미수용 원칙을 재차 확인하면서, 미국-멕시코 접경지대에 도착한 캐러밴과의 갈등 불가피

마.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정식 역외회원국 가입

□ 기획재정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회원국 가입신청서(IRL) 제출

○ 자본금 4.5억불, 지분율 7.58%으로 역외회원국 2위 영향력 확보

- 이사직 수임 및 지분율에 비례한 권한 행사로 한국기업에 유리한 정책 수립, 중미지역 프로젝트 수주율 제고 기대

  * 2005-2014년 누계 기준 다자개발은행(MDB) 중미투자액 비교 : CABEI(50%, 140억불), IDB(33%, 90억불), WB(17%, 50억불)

○ 특히 한국 자금(EDCF·전대금융) 투입 CABEI 인프라사업의 경우 공동 심사, 입찰정보 사전 획득 가능

□ 향후 중미 조달시장 내 아국기업 참여기회 확대 기대

○ CABEI 금융을 활용한 중미 조달시장 내 아국기업 참여기회 확대 예상

- 조달 규정에 의거, 회원국 기업에 유리한 사업 발주방식 운영(최저가 응찰업체 115% 이내 견적 시 입찰가 조정기회 부여, 우선 선정)

〈 중미경제통합은행 소개(CABEI(영) 또는 BCIE(서)) 〉

(설립일) 1960. 12. 13
(소재지) 테구시갈파(온두라스) / (신용등급) A+(Fitch), A1(Moody's)
(주요기능) 지역개발, 통합 관련 정책금융 집행
(現총재) Dante Mossi(2018.12월부 취임, 온두라스 국적)
* 과거 Worldbank 파라과이사무소장 역임(~2018.11월)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상세 개요 〉

ㅇ(자본금규모) 수권자본금 50억불, 납입자본금 약 11억불
- (MDB 비교) IDB 1,709억불, ADB 1,647억불, AfDB 1,069억불, EBRD 432억불 등
ㅇ(중점분야) 인프라, 에너지, 금융중개, 개발금융, 농촌사회·인적자원개발 등
ㅇ(사업실적) 설립이후 2016년까지 총 259억불 사업 지원(집행액 기준)
- 2015년 1,857백만불 → 2016년 2,106백만불 규모 사업 승인
ㅇ(회원국 및 지분율)

역내국	엘살바도르(11.85%), 니카라과(11.85%), 온두라스(11.85%), 코스타리카(11.85%), 과테말라(11.85%), 파나마(5.13%), 도미니카공(5.04%), 벨리즈(0.48%) 등 8개국
역외국	대만(11.62%), 멕시코(7.11%), 스페인(4.65%), 아르헨(3.36%), 콜롬비아(3.36%), 쿠바*(2017.4월 가입) 등 6개국

* 2018. 11월 현재 11개국(밑줄)이 이사직 수임(아르헨·콜롬비아는 교대)
ㅇ최근 한국수출입은행-CABEI간 협약 체결 현황
- 한국수은-CABEI 1억불 EDCF협조융자협약 체결(2017.1월)
- 한국수은-CABEI 3억불 전대금융계약 증액(2017.4월)
* 2013년 5천만불→ 2015년 1억불 → 2017년 3억불로 꾸준히 상향 조정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바. 중미·카리브지역의 脫대만·親중국화 물결 가속화

□ 최근 2-3년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대만 단교 분위기 확산

○ 코스타리카(2007년), 파나마(2017년), 도미니카공(2018. 5월), 엘살바도르(2018. 8월) 등 중미 국가들의 대만 단교가 급속도 확산

○ 美정부의 엘살바도르 관계 재검토, 지원금 축소 발언을 비롯하여, 美상원은 대만과 단교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법안까지 추진 중

- 실제 엘살바도르는 달러화 경제이고 在美국민이 3백만명(全인구 641만명)에 달하는 등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상당한 정치경제적 후폭풍에 직면 예상

□ 미·중무역분쟁의 국제 역학관계 속 과테말라는 親대만 방침 유지 전망

○ 과테말라는 미국·대만 입장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어 대만과의 국교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 미국은 과테말라를 중남미권에서 중국의 영향력 북상을 견제하는 저지선으로, 대만은 남아있는 17개 수교국 중 최대국*으로서의 의미 내포

  * 대만 수교국 중 인구 천만명 이상 국가는 과테말라, 아이티 2개국에 불과

[대만의 주요 수교국 현황(2018. 9월 기준)]

(단위: 천명)

유 럽	바티칸(1)	중 미	과테말라(17,240), 온두라스(9,410), 니카라과(6,280), 벨리즈(380)
오세아니아	나우루(11), 키리바시(110), 투발루(11), 솔로몬제도(620), 마셜제도(53), 팔라우(21)	카리브	세인트루시아(180), 세인트키츠네비스(55), 세이트빈센트그레나딘(110), 아이티(11,110)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스와질란드, 1,390)	남 미	파라과이(6,890)

주: *괄호는 국별 인구를 의미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대통령과 CICIG간의 갈등, 2019년 각종 선거로 정치적 불안정 불가피
- (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재외동포 송금에 힘입어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 특히 환율/소비시장이 안정되면서 각종 재화 수입도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산업) 중미 제조강국으로 임가공 등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전망

가. 정치 환경

□ 정치비리 근절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갈등 격화

○ 정치범죄 및 이들과 연계한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 유엔 산하 기구인 '과테말라 반면책특위(이하 CICIG)*'를 창설, 당초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 활발히 활동 중

* 갱조직과 연계한 강력범죄, 면책 특권을 활용한 정치비리가 끊이지 않자, 부정부패 척결과 사법기관 강화를 위해 과테말라정부와 유엔 간 협약에 따라 설치(2006. 12. 12 ~)

○ 오또 베레스(Otto Perez) 前대통령 또한 CICIG의 수사를 계기로 'LA LINEA' 대형스캔들이 밝혀졌고, 부패 혐의로 구속되어 대통령직을 사임한 바 있으며(2015. 9월), 現대통령의 친인척 스캔들 문제도 제기

□ 지미 모랄레스 現대통령, 정권 신뢰 추락 및 레임덕으로 국정 올스톱

○ 한편 CICIG가 집권여당(FCN당)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現대통령과 갈등 촉발

- 특히 대통령의 CICIG 現위원장(이반 벨라스께스, Ivan Velasquez)에 대한 추방명령(2017. 8월)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반대시위, 퇴진운동 등으로 비화

  * 이어 국회가 검찰 및 CICIG가 제기한 現대통령 면책특권 박탈소송을 부결시키면서, 비난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한편 全국민이 참여하는 시위 "Paro Nacional"을 촉발(2017. 9월)

○ 한편 이반 위원장이 출국한 사이 CICIG 활동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위원장 입국금지까지 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및 고립 자초(2018. 9월)

- 이에 UN 구떼레스 사무총장은 이반 위원장에게 국외에서의 CICIG 통솔을 지시하고, EU, 미국 등 다수국이 CICIG 지지를 표명하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

○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들도 찬반을 두고 분열 되면서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마저 예고되고 있어 후반기 정국은 대혼란 불가피

나. 경제 환경

□ 경제일반

○ (성장) 2019년 美경기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美의존도의 경제구조에 힘입어 평년 대비 양호한 3.5%대 성장세 전망

- 이는 미국발 가족송금 증가, 미화 강세에 따른 소비력 증대 등 외생요인 호조에 따른 결과

○ (민간소비) GDP의 86%를 차지하는 중심축으로 특히 해외동포 송금에 따른 안정적 외환 유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은 3.7%선 예상

○ (정부소비) 과테말라 재무부는 201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으로 890억 과테말라 께찰(약 119억 달러) 확정(전년도 770억 께찰 대비 15.6% 증가)

-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도 불구, 집행률은 저조하고 2018년 증액안도 국회 무산된 사례가 있어 경기활성화에 적절히 활용치 못하는 행정 리스크 존재

□ 교역동향

○ 과테말라 교역액은 수출입 모두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17년 7.0%, 2018년 상반기에는 4.4% 증가하는 등 회복세로 전환

- 특히 유류(23.5%), 가스(22.4%) 등 에너지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 등의 내구재 외에도 판지, 플라스틱 원자재 등 중간재가 성장세를 뒷받침
- 국별로는 수출입 모두 미국, 멕시코, 중미 등 근거리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게 관찰되며, 이들 역내 국들을 제외하면 중국과 한국이 가장 많은 양을 수출

○ 수출보다는 수입이 월등히 많은 만성적자(연 74억불 내외) 교역구조 지속

- 이는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와 각종 임가공 용도의 원부자재 수입 등에 기인

○ 2016년은 일시적으로 무역적자가 완화되었으나, 수출 및 수입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입 감소폭이 보다 커서 발생한 착시효과

- 이후 유가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와 커피, 사탕수수 등 주력품목의 수출 감소 등으로 교역적자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

[최근 4년간 과테말라의 주요수입국 및 국별 시장점유율]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증감률 (18/17상반기, %)
수 출(백만 달러)	10,731.3	10,447.2	10,993.1	5,579.1	-2.83
수 입(백만 달러)	17,369.5	17,000.9	18,387.7	9,603.2	9.14
교역수지(백만 달러)	-6,638.2	-6,553.7	-7,394.6	-4,024.1	31.6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입국가 요약]

수입(CIF)						수출(FOB)					
순위	국 가	금액(백만 달러)		비중(%)		순위	국 가	금액(백만 달러)		비중(%)	
		2017	2018(상)	2017	2018(상)			2017	2018(상)	2017	2018(상)
1	미 국	6,997.8	3,724.3	38.60	38.78	1	미국	3,715.7	1,999.9	33.80	35.85
2	멕시코	1,968.4	1,022.6	10.70	10.65	2	엘살바도르	1,216.5	647.5	11.07	11.61
3	중 국	2333.0	998.5	12.69	10.40	3	온두라스	967.3	410.3	8.80	7.35
4	엘살바도르	875.5	500.7	4.76	5.21	4	니카라과	562.2	282.5	5.11	5.06
5	코스타리카	567.2	318.8	3.08	3.32	5	멕시코	509.7	248.4	4.64	4.45
6	파나마	392.8	267.2	2.14	2.78	6	코스타리카	423.4	210.3	3.85	3.77
7	콜롬비아	393.0	239.7	2.14	2.50	7	네덜란드	361.0	160.3	3.28	2.87
8	온두라스	329.8	204.4	1.79	2.13	8	파나마	288.8	117.8	2.63	2.11
9	스페인	271.4	182.1	1.48	1.90	9	캐나다	228.4	99.9	2.08	1.79
10	인 도	308.5	151.7	1.68	1.58	10	도미니카공	144.8	85.9	1.43	1.54
11	**한 국**	**306.2**	**148.0**	**1.67**	**1.54**	14	일본	153.6	72.5	1.40	1.30
12	일 본	361.0	146.0	1.96	1.52	**18**	**한국**	**98.6**	**45.4**	**0.90**	**0.81**
계		18,387.7	9,603.2		9.14	계		10,993.1	5.579.1		-2.83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 투자진출동향

○ 과테말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 10년간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 2011년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양상임

- 2015년 감소폭(-13.7%)이 두드러지는데, 정권교체기로 접어들면서 다수기업이 투자계획을 유보했기 때문으로 해석

[최근 10년간 연도별 외국인투자(FDI) 유입 추이]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금액(백만달러)	600.0	805.8	1,026.1	1,244.5	1,295.4	1,388.7	1,220.8	1,184.6	1,146.7	546.2

자료원: 과테말라중앙은행(Banco de Guatemala, 2018. 11월 기준)

○ 국별로는 콜롬비아(27.6%), 멕시코(18.4%), 미국(15.2%) 순으로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국(2018년 1분기 기준 2.7%)

다. 산업 환경

□ 산업동향 일반

○ 봉제 등 임가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경제의 가장 큰 비중(17.6%)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서비스업(15.9%), 농축수산업(13.5%), 도소매업(11.9%) 순

○ 민간서비스업(3.6%), 도소매업(3.6%), 물류통신업(3.5%), 농수축산업업(2.9%), 제조업(2.2%) 등 주요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광업은 2016년 대법원의 라 뿌야(LA PUYA) 광산 채굴권 중지 조치와 같은 사법적 불안요소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근래에 큰 감소세 관찰

[2016-2017년 과테말라 주요산업별 GDP 비중 및 증감률(%)]

(단위: %)

구 분	GDP대비 비중		증감률		구 분	GDP대비 비중		증감률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제 조 업	17.7	17.6	3.6	2.2	공공행정/국방	7.7	7.6	2.2	1.8
민간서비스업	15.7	15.9	3.1	3.6	금융보험업	6.2	6.3	8.1	5.0
농수축산업	13.5	13.5	3.1	2.9	전기/상하수도	2.9	3.0	5.3	5.6
도소매업	11.8	11.9	3.6	3.6	건설업	2.8	2.8	1.8	2.7
물류통신업	10.3	10.4	2.8	3.5	광업	0.8	0.6	-10.6	-23.2
부동산임대업	9.8	9.9	3.1	3.0					

자료원: 과테말라중앙은행(Banco de Guatemala, 2018. 11월 기준)

□ 봉제·임가공업(한국투자 연관산업)

○ 봉제업은 국내경제 및 고용창출 관점에서 기여도가 가장 큰 핵심 산업

- 봉제업은 총 GDP의 8.9%를 차지하며, 2017년 15.4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를 수출하는 핵심 업종
- 한편 제조된 의류의 90%가 해외로 수출되며(미국이 79% 차지), 이에 한국계 봉제업체도 '90-00년대에 다수 진출,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
- 그러나 꾸준한 인건비 상승, 주재국 정부의 투자진출기업 혜택 축소 등으로 봉제산업의 활력은 과거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

□ 자동차 수입

○ 중고차가 전체 자동차 수입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고차 주도 시장

- 차량 수입량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중고차 수요의 폭발적 성장에 기인

[최근 3년간 과테말라 자동차(신차·중고차 포함)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HS코드)	2016	2017	2018(상)	증감률(18/17)
승용차(8703)	545,173.9	590,250.5	286,141.2	1.40
화물차(8704)	311,911.4	319,022.6	180,143.3	13.14
승합차(8702)	47,571.7	49,444.2	28,062.3	-1.28
계	904,657	958,717.3	494,346.8	6.44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 시장의 경우 신차 판매량은 꾸준히 감소

- 자동차수입유통업협회(AIDVA)에 따르면 판매량 기준 도요타(점유율 27.7%)의 독주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기아차(2위, 9.7%), 현대차(4위, 6.4%)는 최근 들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상황

  * 한국산은 주력모델이 현대 i10·크레타, 기아 리오·피칸토 등 경형·소형차에 집중

[최근 5년간 과테말라 주요 브랜드 신차 판매량 추이]

(단위: 대, %)

순위	브랜드	2014	2015	2016	2017	2018(7월누계)
1	도요타	7,035	7,231	7,276	7,191	4,412
2	기 아	3,573	3,600	3,640	2,734	1,537
3	닛 산	1,753	1,887	2,061	1,946	1,055
4	현 대	3,129	3,357	3,235	2,385	1,025
5	이스즈	1,003	1,405	1,746	1,523	877
총판매량(증가율)		28,906(12.1)	31,239(8.1)	30,799(-1.4)	28,082(-8.8)	15,922(0.1)

자료원: 과테말라자동차수입유통업협회(AIDVA, 2018. 11월 기준)

라. 정책·규제 환경

□ 정책·규제 일반

○ 과테말라정부, 산업계의 수출·임가공업 경공업 진흥정책 지속

- 그러나 주력산업인 봉제업(임가공)의 경우 계속된 인건비 상승,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매력도 점차 상실

○ 투자기업 세제혜택 축소, 조세개혁 움직임 등으로 기업 운영 부담 가중

- 마낄라법(28-89)이 소멸되면서 대체법안인 긴급고용법(19-2016)이 시행 중이나, 예전 대비 임가공업체 대상의 혜택이 많이 축소된 상황
- 또한 돈세탁범죄 방지를 위한 은행계좌추적법이 전격 시행(2017년 2월)되었고 국세청(SAT), 검찰을 비롯한 각종 감시 당국에서 기업 회계·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기업 활동 위축 불가피

□ 핵심정책

○ 2032 장기국가발전계획(K'atun, Nuestra Guatemala 2032)

- 각계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개발과 관련된 전분야의 개발계획과 전략을 집대성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서이며, 대통령직속 기획청(SEGEPAN)이 총괄

  * 빈곤퇴치, 사회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 목적의 장기 국가개발전략(2012-2032, 20년)

- 지방균형발전, 서민복지증진, 국가생산성증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개발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프로젝트, 투자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다수의 국가정책 및 시행계획이 여기서 파생

○ 2016-2020 신정부 정책지침(Política General de Gobierno 2016-2020)

- 장기국가발전계획 K'atun 2032를 기반으로 新행정부의 향후 국정방향, 주요정책 등을 집대성한 지침서
- 특히 부패무관용, 국가현대화, 식량안보, 보건환경, 교육개선, 중소기업·관광산업강화, 치안개선, 환경보호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

□ 양자·다자협정 관련

○ 시장개방, 수출 및 투자 진흥에 방점을 둔 親FTA 입장 견지

- FTA 및 관세협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만 결렬된 한-중미 FTA는 반대 업계 의견 수렴 후 재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

○ 양자·다자협정 체결현황

발 효

①FTA(양자·다자)

국가	구분	체결일	발효일
도미니카	다자(중미)	2000.5.18	2001.10.15
멕시코	다자(중미)	2011.11.22	2013.9.1
파나마	다자(중미)	2002.3.6	2009.6.22
미 국 (DR-CAFTA)	다자(중미)	2004.8.5	2006.7.1
대 만	양자	2005.9.22	2006.7.26
콜롬비아	3자(과·엘·온)	2007.8.9	2009.11.12
칠 레	다자(중미)	2007.12.7	2010.3.22
E U	다자(중미)	2012.6.29	2013.12.1

진행 중

①FTA(양자·다자)

국가	구분	단계
캐나다	4자(과·엘·온·니)	협상중(중단)
페 루	양자	체결(2011.12.6)
EFTA (스위스·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랜드)	다자(중미)	체결(2014.11.17)
한 국	다자(중미5국) *과테말라 제외	정식서명 (2018.2.21) *엘살바도르 국회 비준(2018.6.22)

②관세협정

국가	체결일	발효일
베네수엘라	1985.10.30	1986.4.10
쿠바	1999.1.29	2001.5.18
벨리즈	2000.6.20	2010.4.4
에콰도르	2011.4.5	2013.1.1
트리니다드토바고	2011.7.	2015.2.6

③관세동맹

국가	체결일	발효일
온두라스	2015.2.26	2017.6.26(정식)

②관세동맹

국가	구분	단계
엘살바도르	3자(과·엘·온)	체결(2018.8.27) *엘국회 비준 완료(2018.7.20)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2. 시장분석

- 중미 최대 시장이자 중미 시장 진출 교두보
  - 미국, 멕시코, 중미 등 인근국 교역이 많고, 역외국 중에는 중국, 한국이 최다국
- 멕시코/중미는 식료품, 경공업품에 집중되나, 한국은 품목의 다양성에서 우위
-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7년 11억 달러였으며, 한국은 아시아지역 최대 투자국
  - 우리의 주력 업종인 봉제업은 미국 오더 감소, 경쟁력 하락으로 침체기 지속
- 주요 프로젝트는 대부분 보류된 상태로 실제 추진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교역) 중미시장 진출 교두보이자 중미 6개국 중 최대 소비시장

○ 과테말라는 중미 GDP의 29.5%, 수입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이 많아 중미시장 관문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 특히 평균관세율 2.7%의 높은 무역개방도를 갖추고 있으며, 중미공동시장 회원국(파나마 제외 5개국) 간에는 역내 원산지제품 무관세교역 시행 중

□ (사회) 치안 개선 움직임 속 여전히 높은 대미의존, 공공지출 저조 등 사회적 불안정 여전

○ 중미 지역의 피살율, 납치 등 치안 관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타지역 대비 여전히 높아 치안 불안은 역내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인

○ 교역 및 외환 유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대미의존도가 수출 35.9%, 수입 38.8%에 이르며, 미거주 과테말라인(120만명 추산) 본국 가족송금액이 GDP의 10.8%를 상회

○ 정부 주도 또는 개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 모멘텀 확보가 절실하나, 만성적 재정부족과 더불어 해외원조의 중심축인 미국의 원조 삭감 움직임으로 SOC 등 공공부문 투자는 무상원조를 제외하고는 매우 더딘 상황

〈 [참고] 중미시장 소개 〉

□ (개요) 과테말라(북단)부터 파나마(남단)까지의 중미 6개국을 의미

○ 상호유사성으로 경제·정치적 통합 논의가 반복되어온 역사적 특징

- 중미기구(ODECA, 1951), 중미공동시장(MCCA, 1960)에 이어 현재의 중미통합체제(SICA, 1993) 창설

* 對스페인독립(1821), 중미연방(1823-1838)을 거쳐 現체제 정착

□ (경제규모) 인구·GDP·수입규모 기준 중남미 4대 유망시장

○ 중미 GDP(2.4천억불)는 콜롬비아(2.8천억), 칠레(2.4천억), 페루(1.9천억) 등 중남미 FTA 旣체결국과 유사 수준

* GDP기준 방글라데시(2.2천억불), 베트남(2.1천억), 체코(1.9천억) 등 상회

[중남미 주요국간 경제규모 비교]

나. 수출

□ 수출입 동향 일반

○ 미국, 멕시코, 중미공동시장(CACM) 등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3.7%, 수출은 70.2%를 차지하는 등 역내시장 高의존 성향 관찰

○ 수입 상위 3개국인 미국, 멕시코, 중국 중에서는 중국산이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는 한편 미국, 멕시코 는 반대로 수입량이 줄고 있는 상황

* 중국산 시장점유율 : (2014)9.8% → (2015)10.6% → (2016)10.9% → (2017)12.7% → (2018.상)9.8%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입규모]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2018/ 2017,%)
		2016	2017	2018(상)	2016	2017	2018(상)	
1	미 국	6,521.2	6,997.8	3,724.3	38.36	38.60	38.78	4.83
2	멕시코	1,943.0	1,968.4	1,022.6	11.43	10.70	10.65	9.03
3	중 국	1,853.2	2333.0	998.5	10.90	12.69	10.40	9.82
4	엘살바도르	902.8	875.5	500.7	5.31	4.76	5.21	4.90
5	코스타리카	595.5	567.2	318.8	3.50	3.08	3.32	9.99
6	파나마	565.7	392.8	267.2	3.33	2.14	2.78	-1.74
7	콜롬비아	376.5	393.0	239.7	2.21	2.14	2.50	16.05
8	온두라스	331.6	329.8	204.4	1.95	1.79	2.13	14.64
9	스페인	264.5	271.4	182.1	1.56	1.48	1.90	59.76
10	인 도	266.8	308.5	151.7	1.57	1.68	1.58	14.14
11	**한 국**	**321.3**	**306.2**	**148.0**	**1.89**	**1.67**	**1.54**	**9.72**
12	일 본	306.9	361.0	146.0	1.81	1.96	1.52	4.41
20	대 만	119.8	131.7	63.5	0.70	0.72	0.66	6.30
계		17,000.9	18,387.7	9,603.2				9.14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 한편 국별로 수입품목이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미국은 화석연료· 자동차, 멕시코는 전기·의약품·중간재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은 공산품 전반에 걸쳐 품목 분포

- 다만 대미 자동차 수입은 중고차가 대부분이며, 실제 2018년 상반기 신차 판매동향을 보면 미국산 브랜드는 5% 미만에 불과

[2017년 과테말라의 3대 주요수입국별 5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미 국		멕시코		중 국	
	품목(HS코드)	금액	품목(HS코드)	금액	품목(HS코드)	금액
1	석유(2710)	2,013.7	전기(2716)	93.9	휴대전화(8517)	186.4
2	휴대전화(8517)	279.7	모니터(8528)	75.3	오토바이(8711)	88.5
3	승용차(8703)	258.2	방향성물질(3302)	58.7	타이어(4011)	72.4
4	천연가스(2711)	249.7	의약품(3004)	53.2	편물(6006)	52.3
5	판지(4804)	209.3	계면활성제(3402)	47.8	철강(7208)	49.8
-	계	6,997.8	계	1,968.4	계	2,333.0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 한편 중점 교역국 중 역내 중미국은 경공업품, 식료품, 봉제 관련 원부자재 등에 집중

- 엘살바도르, 코스티라카에서의 수입이 가장 많고 니카라과가 가장 적은 경향

[2017년 과테말라의 중미지역(5개국) 5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화장지 (4818)	53.0	천연가스 (2711)	65.7	쇠고기 (0201)	17.9	가공식품 (2106)	77.5	의약품 (3004)	150.0
2	플라스틱제품 (3923)	49.3	비누 (3401)	45.8	소냉동육 (0202)	15.0	소스 (2103)	35.5	석유 (2710)	24.0
3	설탕 (2202)	45.5	빵 (1905)	17.9	유제품 (0402)	14.4	화장지 (4818)	35.2	냉동어류 (0303)	17.8
4	빵 (1905)	41.2	팜유 (1511)	15.1	밀가루 (1901)	6.9	면웨이스트 (5205)	25.6	신발류 (6404)	9.9
5	의약품 (3004)	39.5	철강 (7210)	10.7	설탕 (2202)	6.7	살충제 (3808)	20.7	혈액 (3002)	9.6
-	계	875.5	계	329.8	계	118.0	계	567.2	계	392.8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 한편 과테말라의 수출은 큰 증감 없이 정체된 양상으로, 미국, 멕시코를 비롯하여 중미 역내국 위주로 수출시장 치중(전체의 71.7% 차지)

○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국가로의 수출은 큰 폭의 감소가 공통적으로 관찰되며, 주로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팜유 등 농산물 수출이 대거 줄어든 것이 주 이유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출규모]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2018/2017,%)
		2016	2017	2018(상)	2016	2017	2018(상)	
1	미 국	3,448.8	3,715.7	1,999.9	33.01	33.80	35.85	4.04
2	엘살바도르	1,204.4	1,216.5	647.5	11.53	11.07	11.61	8.47
3	온두라스	913.9	967.3	410.3	8.75	8.80	7.35	-14.41
4	니카라과	569.2	562.2	282.5	5.45	5.11	5.06	7.01
5	멕시코	458.6	509.7	248.4	4.39	4.64	4.45	5.27
6	코스타리카	425.7	423.4	210.3	4.07	3.85	3.77	0.91
7	네덜란드	307.4	361.0	160.3	2.94	3.28	2.87	9.92
8	파나마	248.7	288.8	117.8	2.38	2.63	2.11	7.74
9	캐나다	354.5	228.4	99.9	3.39	2.08	1.79	-32.31
10	도미니카공	149.4	144.8	85.9	1.41	1.43	1.54	17.46
14	일 본	169.7	153.6	72.5	1.62	1.40	1.30	-33.67
18	**한 국**	**123.1**	**98.6**	**45.4**	**1.18**	**0.90**	**0.81**	**-41.74**
28	대 만	74.0	76.7	30.2	0.71	0.70	0.54	-41.00
계		10,447.2	10,993.1	5,579.1				-2.83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 품목별 수출·입현황

○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공산품 및 현지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에 집중

- 연료(석유·가스·석탄), 자동차(승용차·화물차), 휴대폰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식품류, 의약품, 봉제·플라스틱 등과 같은 현지에 발달한 경공업용 원부자재 등이 수입 상위품목을 차지
- 특히 지난해 대비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입이 2018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5% 가량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과테말라 주요 수입품목(상위 15개 품목)]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2018/2017,%)
		2016	2017	2018(상)	2016	2017	2018(상)	
1	석유화학제품(2710)	1,827.3	2,148.1	1,309.6	10.75	11.68	13.64	23.46
2	승용차(8703)	590.3	572.9	286.1	3.47	3.12	2.98	1.40
3	휴대전화(8517)	555.2	626.9	276.9	3.27	3.41	2.88	-0.42
4	의약품(3004)	534.2	503.3	248.6	3.14	2.74	2.59	-5.31
5	천연가스(2711)	250.6	333.3	182.6	1.47	1.81	1.90	22.44
6	화물차(8704)	319.0	353.1	180.1	1.88	1.92	1.88	13.14
7	판지(4804)	177.9	240.6	132.0	1.05	1.31	1.37	23.18
8	에틸렌중합체(3901)	207.2	217.3	125.6	1.22	1.18	1.31	18.83
9	조제식품(2106)	217.4	212.9	120.2	1.28	1.16	1.25	14.99
10	옥수수(1005)	217.4	213.8	110.5	1.28	1.16	1.15	4.40
11	석탄(2701)	160.5	186.2	107.2	0.94	1.01	1.12	-8.65
12	대두부산물(2304)	154.1	150.2	94.3	0.91	0.82	0.98	24.44
13	컴퓨터(8471)	171.5	178.2	93.4	1.01	0.97	0.97	15.24
14	살충제(3808)	179.7	170.6	86.4	1.06	0.93	0.90	7.46
15	오토바이(8711)	170.1	181.5	86.1	1.00	0.99	0.90	25.93
계		17,000.9	18,387.7	9,603.2				9.14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 과테말라 수출은 감소세, 주력 제품은 농산물과 의류제품에 집중

- 해외 수출은 수입과 달리 2018년 상반기 들어 감소세를 보이며, 상당부분이 농산물(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수출 감소에 기인
- 한편 중미 임가공 수출국인 니카라과의 정치 불안정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과테말라 마낄라산업 및 의류수출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니카라과정부의 사회보장기금(INSS) 개혁안(2018.4.16)으로 촉발된 반정부시위로, 정부와 시민이 대치하면서 야기된 유혈사태

[과테말라 주요 수출품목(상위 15개 품목)]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2018/ 2017,%)
		2016	2017	2018(상)	2016	2017	2018(상)	
1	커피(0901)	651.0	748.6	474.3	6.23	6.81	8.50	-3.05
2	바나나(0803)	772.4	875.1	425.9	7.39	7.96	7.63	-0.43
3	사탕수수당(1701)	816.7	826.4	410.5	7.82	7.52	7.36	-26.93
4	육두구(0908)	229.1	366.8	224.2	2.19	3.34	4.02	13.42
5	팜유(1511)	376.2	447.2	188.3	3.60	4.07	3.38	13.29
6	여성용블라우스(6106)	386.6	313.7	156.8	3.70	2.85	2.81	-13.31
7	남성용셔츠(6105)	253.6	242.0	154.2	2.43	2.20	2.76	31.18
8	멜론(0807)	206.9	183.4	130.4	1.98	1.67	2.34	17.25
9	저지·풀오버·가디건(6110)	111.6	221.9	122.7	1.07	2.02	2.20	22.26
10	의약품(3004)	303.8	217.1	104.6	2.91	1.98	1.88	-2.43
11	여성정장(6204)	165.7	178.2	92.4	1.59	1.62	1.66	5.77
12	살충제(3808)	170.0	167.1	88.7	1.63	1.52	1.59	7.58
13	합금철(7202)	87.1	120.6	84.6	0.83	1.10	1.52	68.99
14	채두류(0708)	101.0	126.4	80.0	0.97	1.15	1.43	19.49
15	종이상자(4819)	130.5	142.4	75.5	1.25	1.30	1.35	5.46
계		10,447.2	10,993.1	5,579.1				-2.83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다. 투자진출

□ 투자진출 동향

○ 국별로는 2017년 연간 기준으로 미국(18.2%), 멕시코(17.8%), 콜롬비아(14.0%) 순으로 투자비중이 컸고,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국(2017년 2.9%)

- 2018년 1분기 들어 콜롬비아 투자가 크게 늘었는데, EPM社가 과테말라 배전사 EEGSA 지분을, BANCOLOMBIA은행이 업계 4위권인 BAM은행의 지분을 보유, 관련 자본 유입이 꾸준하기 때문으로 분석
- 한국은 봉제업종 진출기업이 많아 제조분야 FDI 규모로는 멕시코(72.9백만 달러), 미국(68.9백만 달러)에 이은 3위국(32.5백만 달러)

○ 2019년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대거 증대되면서, 2015년과 마찬가지로 기업투자가 대거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6년간 국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상반기)	
	FDI	비중	FDI	비중	FDI	비중	FDI	비중	FDI	비중	FDI	비중
중미·도미니카공	93.9	7.2	97.2	7.0	60.2	5.0	86.1	7.3	63.7	5.5	54.7	10.0
콜롬비아	154.8	11.9	141.9	10.2	163.9	13.4	123.7	10.4	160.2	14.0	46.9	8.6
멕시코	142.8	11.0	105.2	7.6	60.3	4.9	186.3	15.7	204.1	17.8	94.9	17.4
미 국	220.9	17.1	440.6	31.7	385.1	31.5	348.9	29.5	208.5	18.2	155.8	28.5
룩셈부르크	24.8	1.9	38.7	2.8	46.6	3.8	52.3	4.4	55.7	4.9	46.3	8.5
스페인	73.5	5.7	42.6	3.1	62.0	5.1	68.1	5.7	57.0	5.0	22.1	4.1
페 루	14.8	1.1	14.8	1.1	-4.1	-0.3	-10.5	-0.9	81.6	7.1	23.9	4.4
한 국	47.5	3.7	33.6	2.4	32.6	2.6	47.0	4.0	33.7	2.9	16.4	3.0
스위스	19.0	1.5	24.5	1.8	15.3	1.3	43.2	3.6	34.5	3.0	10.0	1.8
이스라엘	10.2	0.8	38.3	2.8	17.2	1.4	32.3	2.7	43.3	3.8	4.2	0.8
러시아	185.4	14.3	85.5	6.2	79.4	6.5	27.7	2.4	20.7	1.8	8.1	1.5
중 국	0.0	0.0	0.2	0.0	-0.6	0.0	1.7	0.1	0.4	0.0	-0.8	-0.1
대 만	1.4	0.1	0.4	0.0	-0.2	0.0	0.0	0.0	0.3	0.0	0.6	0.1
독 일	28.5	2.2	21.6	1.6	26.6	2.2	6.9	0.6	21.3	1.9	5.6	1.0
캐나다	155.5	12.0	108.6	7.8	61.7	5.1	7.7	0.7	32.8	2.9	-14.2	-2.6
영 국	-30.0	-2.3	71.8	5.1	35.7	2.9	26.9	2.3	14.3	1.2	-16.5	-3.0
기 타	152.1	11.8	123.2	8.8	179.1	14.6	136.3	11.5	114.6	10.0	88.2	16.1
계	1,295.4		1,388.7		1,220.8		1,184.6		1,146.7		546.2	

자료원: 과테말라중앙은행(Banco de Guatemala, 2018. 11월)

○ 업종별로는 상업(22.6%), 제조업(21.9%), 전력(16.5%), 금융업(12.8%) 대상의 외국인투자 활발(2017년 기준)

- 전력, 금융, 통신업 비중이 큰 이유는 멕시코, 콜롬비아계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의 지분 인수 등으로 시장에 대거 진출했기 때문

○ 한편 한국업체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임가공업은 투자 활기를 크게 잃었고, 따라서 전력·통신 등 기간산업 대상의 재투자 외에 신규 유입은 미미

[2017년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연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투자금액	비율	구 분	투자금액	비율
상 업	259.3	22.6	통신업	120.2	10.5
제조업	251.7	21.9	농업·광업(광물·석유)	61.3	5.4
전 력	189.4	16.5	기타	117.8	10.3
금융·보험업	147.0	12.8	계	1,146.7	

자료원: 과테말라중앙은행(Banco de Guatemala, 2018. 11월)

□ 봉제·임가공업(한국투자 연관산업)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봉제, 직물·방적, 액세서리·기타서비스업 등을 통틀어 280개사 이상의 기업이 현재 활동 중

- 한때는 한국인 소유 공장만 300여개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줄어 약 73개사가 VESTEX 회원사로 등록, 활동 중
- 특히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에서 섬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70%에 달하였으나, 봉제업 위축 및 他산지 원자재 사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산은 꾸준히 감소

* DR-CAFTA YARN포워딩 규정에 따라 대미수출 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의 미국산 또는 역내 생산 원사 이용 의무화

□ 투자진출 장벽

○ 각종 세제혜택 제도화에도 불구, 부패 만연, 관료주의, 보신주의 등의 폐해로 다수의 투자기업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영 환경

- 특히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해석 문제를 비롯하여 법이 명시한 부가세환급 지연, 비자발급 지연, 과도한 통관 지연 등 불합리한 사례가 수시 발생하여 기업인들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

○ 또한 근래에도 외국인 투자 안정성을 헤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생기면서, 외국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예측 불허의 부정적 요소 다수 존재

〈미국계 광산개발회사 투자진출 실패 사례(유의사례)〉

o (기업명) EXMINGUA社(미국계 광산기업 KAPPES, CASSIDAY & ASSOCIATES社 투자기업)

o (투자개요) EL PROGRESO주 소재 LA PUYA광산 개발을 주도, 2012년 채굴 및 운영 시작

o (사건경과)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충돌 발생, 이후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권리구제(AMPARO) 소송 제기
- 대법원은 2016년 6월 이를 인용하고 해당 광산의 잠정적 운영 중지를 판결, 2018년 9월 현재까지 채굴 전면 중단 상태 유지

o (현황) EXIMGUA측 헌법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헌재는 판결을 미루며 지연
- 해당기업은 미-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 협정문 제10조에 근거하여 과테말라정부 상대로 3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소송 개시

라. 프로젝트

○ 만성적인 재정 부족 및 발주기관의 프로젝트 오너십, 추진 의지 부족으로 수년전부터 공표해왔던 국가 핵심 프로젝트 대부분이 보류된 상태

○ 과테말라 민관협력사업청(이하 ANADIE)*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사업은 정부종합청사, 경전철사업 등 총 6건, 15.1억불 규모에 불과(2017년 9개 사업 중 3개 취소)

- 한편 남아있는 사업들 또한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데, '20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들 사업이 실제 추진될지 여부는 더더욱 불확실

  * 민관협력사업청(ANADIE) : 정부법령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민자 투입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총괄(DECRETO 16-2010, ACUERDO GUBERNATIVO NO. 360-2011)

○ 한편 ANADIE는 사업화 성과가 없다는 오명도 있으나 최근 성과를 내며 에스낀뜰라-께찰항 고속화도로 사업과 같은 성공사례도 나오기 시작

[민관협력사업청(ANADIE) 추진 주요 프로젝트 개요]

사업명	규모 (억달러)	개요	추진 단계	발주처
정부종합청사건립사업 (CENTRO ADMINISTRATIVO DEL ESTADO)	2.4	중앙정부 및 주요 공공기관 청사 건립사업	PQ	재정부 (MINFIN)
떼꾼우만복합물류터미널건립사업 (PUERTO SECO INTERMODAL TECUN UMAN II)	0.4	멕시코국경(Tecun Uman) 복합물류단지 건립사업	사전 조사	경제부 (MINECO)
에스낀뜰라-께찰항고속도로사업 (AUTOPISTA ESCUINTLA-PUERTO QUETZAL)	0.8	에스낀뜰라-께찰항간 민자 유료고속도로 41km 구간 건립사업(국회승인대기)	낙찰	통신인프라주택부 (CIV)
라아우로라국제공항현대화사업 (MODERNIZACION AEROPUERTO INTERNACIONAL LA AURORA)	2.0	과테말라 관문공항 시설현대화 및 활주로 확장사업	사전 조사	통신인프라주택부 (CIV)
북-동고속도로건설사업 (VIA EXPRES NOR-ORIENTE)	1.8	CA1고속도로-CA9고속도로를 잇는 23km길이 유료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전 조사	통신인프라주택부 (CIV)
과테말라시티 도심경전철사업 (METRO RIEL)	7.7	Centrannorte(zona18)-Calzada Atanasio Tzul(Zona12)를 잇는 25km길이 전철사업	PQ	철도청 (FEGUA)

자료원: 과테말라민관협력사업청(ANADIE, 2018. 11월 기준)

○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의 경우 인프라사업보다는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

[미주개발은행(IDB) 중미 6개국 국별 지원전략]

과테말라(2017-2020전략)	엘살바도르(2015-2019전략)	온두라스(2015-2018전략)
① 3대 주력분야 - 국가현대화, 교육, 상하수도 ② 지원전략 - 치안 강화프로그램 - 도서산간 모자보건개선 - 번영을 위한 동맹 지원 등 ③ 집행규모 : 7.8억달러 ④ 진행중사업 : 9건 ⑤ 완료사업 : 653건	① 3대 주력분야 - 보건, 재무시장, 사회투자 ② 지원전략 - 인적자본 강화 - 공공재정 건전성 강화 - 물류인프라 개선 ③ 집행규모 : 4.9억달러 ④ 現진행중사업 : 8건 ⑤ 완료사업 : 606건	① 3대 주력분야 - 사회기반투자, 운송, 에너지 ② 지원전략 - 세수·공공지출 효율화 - 지역통합·수송체계 개선 - 전력품질·에너지믹스 개선 ③ 집행규모 : 7.3억달러 ④ 진행중사업 : 15건 ⑤ 완료사업 : 803건

니카라과(2012-2017전략)	코스타리카(2015-2018전략)	파나마(2015-2019전략)
① 3대 주력분야 - 보건, 운송, 에너지 ② 지원전략 - 전력화율, 신재생E 증대사업 - 간선도로망 개선사업 - 도서산간 모자보건개선 ③ 집행규모 : 11.7억달러 ④ 진행중사업 : 21개 ⑤ 완료사업 : 609건	① 3대 주력분야 - 운송인프라, 에너지, 교육 ② 지원전략 - 도로망·국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 신용정책 - 중등교육 강화 ③ 집행규모 : 15.7억달러 ④ 진행중사업 : 10건 ⑤ 완료사업 : 540건	① 3대 주력분야 - 수처리, 사회기반투자, 교육 ② 진출전략 - 도시상하수도 확장사업 - 공공교육시스템 강화 - 물류·운송업 활성화 ③ 집행규모 : 12.8억달러 ④ 진행중사업 : 15건 ⑤ 완료사업 : 511건

자료원: IDB 홈페이지(2018년 11월 조회 기준)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의제

가. 교역

□ 한국과의 FTA

○ 2018년 2월 한-중미 5개국 FTA 정식서명을 마치고 실제 비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미국 중 과테말라만 유일하게 가서명 직전 협상을 결렬

- 한편 이웃국 엘살바도르는 2018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 FTA 비준동의안을 찬성 67표로 공식 의결한 첫 번째 중미 국가가 되었음

○ 한편 과테말라정부는 한-중미 FTA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비준 이후 재협상에 적극 임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철강, 음료 등 주력 제조업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업계에 따라 여전히 엇갈린 반응이어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음

□ 한국의 대과테말라 교역 동향

○ 한국과 과테말라 간 교역액은 수·출입 모두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세

- 과테말라로의 수출은 2017년 기준 2014년 대비 30.4%, 한국의 수입은 무려 66.0%가 감소
- 이는 3대 수입품목인 석유류(-67.1%, 디젤유), 승용차(-21.8%), 편직물(-49.0%) 급감에 의한 결과이며, 원단, 색소 등 각종 원부자재의 대한수입 감소도 한 몫

○ 다만 2018년 상반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9.7% 가량 반등하는 모습인데, 화물차(HS 8704, 6.1%), 승합차(8702, 4.6%), 면사(5205, 338.7%), 건설중장비(8429, 162.6%) 등이 회복세 견인 중

[최근 5년간 한국-과테말라 간 교역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상)
한국→과테말라(천 달러, CIF기준)	439,999	433,763	321,270	306,199	148,029
과테말라→한국(천 달러, FOB기준)	289,821	114,488	123,097	98,577	45,435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품목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동차(승용차·화물차·승합차), 경공업 부자재(면사·합성섬유·염료·중합체) 등 내구재와 산업재에 집중

-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 강세품목의 한국산 선호도는 과거에 비해 정체(또는 침체)된 모습이고, 반면 중국·멕시코 등 신흥 경쟁국이 동 시장을 잠식 중

○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대체적으로 과테말라 상위 수입품목과 일치

- 반면, 멕시코 및 인근 중미국은 농산물, 식료품, 소비재 등 경공업제품에 집중, 품목 다양성에 있어 한국이 우위
- 한편, 우리와 유사한 대만은 FTA를 체결하였음에도 주력품목이 시장수요와 다소 상이하고 따라서 교역량도 미미한 수준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품목(상위 15개 품목)]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2018/2017,%)
		2016	2017	2018(상)	2016	2017	2018(상)	
1	승용차(8703)	47.3	47.5	16.9	14.73	15.52	11.44	-23.05
2	철·비합금강(7206)	0.0	0.0	16.5	0.00	0.00	11.16	-
3	편직물(6006)	43.0	26.1	15.4	13.38	8.51	10.41	0.87
4	화물차(8704)	16.7	16.0	8.2	5.20	5.24	5.53	6.11
5	승합차(8702)	11.2	12.7	7.1	3.48	4.15	4.77	4.56
6	합성유기착색제(3204)	9.3	8.5	5.4	2.90	2.79	3.63	22.57
7	건설중장비(8429)	3.6	4.3	3.7	1.12	1.40	2.53	162.64
8	면사(5205)	4.2	2.7	3.7	1.31	0.90	2.47	338.68
9	축전지(8507)	4.6	4.4	3.5	1.42	1.43	2.35	57.54
10	철·비합금강형강(7216)	1.0	3.1	3.1	0.31	1.02	2.07	247.98
11	음료수(2202)	4.9	5.7	2.3	1.53	1.86	1.58	-15.21
12	에틸렌중합체(3901)	3.3	4.9	2.3	1.03	1.61	1.56	115.58
13	프로필렌중합체(3902)	3.3	4.0	2.1	1.01	1.32	1.45	70.23
14	자동차부품(8708)	3.0	2.9	1.8	0.94	0.93	1.24	47.66
15	판지레이블(4821)	3.3	2.4	1.8	1.02	0.78	1.21	92.81
-	석유화학제품(2701)	44.9	26.8	-	13.96	8.76	-	-
계		321.3	306.2	148.0				9.72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11월)

□ 과테말라의 대한 수출품목

○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거 주력품목인 원당, 바나나 등은 급감하고, 에탄올, 커피 등은 늘어나는 품목 별 부침(浮沈) 관찰

- 원당의 급감 원인은 한국의 구매처가 태국, 호주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됐기 때문이며, 한편 의료 및 연료용 에탄올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큰 특징

○ 수출액의 대부분은 농산물과 스크랩 등 5-6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품목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

* 상위 6개 품목 수출액 점유율(2018.상반기 기준) : 95.5%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입품목(상위 15개 품목)]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2018/ 2017,%)
		2016	2017	2018(상)	2016	2017	2018(상)	
1	에틸알코올(2207)	5.0	12.7	18.7	4.09	12.86	41.05	53.88
2	커피(0901)	22.5	23.4	13.7	18.29	23.72	30.16	-2.43
3	축전지스크랩(8548)	5.2	4.5	4.2	4.24	4.60	9.26	76.01
4	바나나(0803)	9.1	10.5	3.0	7.35	10.68	6.69	-45.88
5	당밀(1703)	0.0	3.3	2.2	0.00	3.31	4.93	-31.34
6	알루미늄스크랩(7602)	1.1	4.6	1.6	0.91	4.69	3.43	-42.04
7	판지(4819)	0.9	1.0	0.5	0.76	1.03	1.18	-5.56
8	남성용셔츠(6105)	0.2	0.3	0.2	0.16	0.30	0.54	160.15
9	냉동채소(0710)	0.2	0.2	0.2	0.14	0.23	0.51	70.79
10	의류부속품(4203)	0.0	0.1	0.2	0.00	0.07	0.39	142.86
11	잎담배(2401)	0.0	0.0	0.1	0.00	0.00	0.27	-
12	양배추(0704)	0.2	0.2	0.1	0.18	0.24	0.20	-24.32
13	봉제용기계(8451)	0.0	0.1	0.1	0.00	0.07	0.20	-
14	화물차(8704)	0.0	0.0	0.1	0.00	0.00	0.15	-
15	프로필렌중합체(3902)	0.0	0.0	0.1	0.00	0.00	0.12	-
계		123.1	98.6	45.4				-41.74

자료원: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018. 9월)

나. 투자

□ 한국의 대과테말라 투자현황

○ 과테말라는 브라질(5만), 아르헨티나(2만), 멕시코(1만), 파라과이(5천)에 이은 중남미 5대 교포 경제권이며, 진출한 봉제업체 관계자들이 주류를 구성

○ 따라서 대기업 보다는 임가공업과 관련된 봉제 및 수직 계열화된 중·소규모 하청기업들이 대부분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봉제, 부자재, 방적·편직·직조, 무역 등 분야에 걸쳐 70여개의 한국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나,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곳도 많아 정확한 현황은 파악 불가능

- 그러나 섬유쿼터 폐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 다수 업체가 폐업 또는 타국가로 이전하여 현재는 전성기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

○ 한국의 대과테말라 투자 신고건수는 1989년 37건, 2000년 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

* (최근 5년간 신고건수 변화) 2014년 5건 → 2015년 4건 → 2016년 3건 → 2017년 7건 → 2018년(상) 1건 등

[한국의 대과테말라 투자현황(1968-2018년 6월 누계)]

업 종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수(개사)	신고금액(천달러)	투자금액(천달러)
제조업	83	221	204,818	112,735
건설업	3	8	32,116	20,218
요식업	2	5	332	232
부동산·임대업	1	2	1,200	1,051
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0	4	301	0
협회·단체·기타서비스업	1	3	20	8
계	90	243	238,787	134,243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8. 11월 조회 기준 최신 자료)

□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

〈투자진출 성공사례 : ALCATEX〉

- 편직·봉제 생산라인을 갖춘 수출임가공 전문기업으로 현지에 자생한 한국계 기업
- 타 봉제기업들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가운데, 공격적 영업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견업체
  - 최근 El Parque Industrial Michatoya로 확장 이전(2017.3월), 개소식에 現지미대통령 참석
- Textivision社(봉제), Nitopia社(편직), Startex社(무역) 등 3개사가 통합, 오더부터 제조, 공급까지 일괄 진행 가능
- 현재 라운드, 폴로티셔츠 등을 주로 생산하며, Polo(Ralph Lauren) 브랜드를 주력으로, Guess, Adidas, Newera, OUterstuff 등 다수의 유명브랜드에 납품 중

※ ALCATEX 자회사 개요

① Nitopia社(편직) : 편직기 200대 보유, 종업원 200여명 근무 중(매출 5백만불/연)
② Textivision社(봉제) : 롱라인 4대 운영 중이며, 종업원 400여명 근무 중(매출 3백만불/연)
③ Startex社(무역) : 무역 자회사로 매출규모는 25백만불/연(종업원수 100여명)

□ 시사점

○ 봉제업의 경우 임가공 투자자에 대한 각종 혜택 축소, 꾸준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과거 80~90년대 전성기 대비 경쟁력을 이미 많이 상실한 상태

○ 특히 주력 구매처인 미국 바이어들의 오더도 상당량이 동남아 공급처로 전환,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이 업계의 중론

○ 더불어 높은 정치적 리스크, 치안 문제, 미국의 대중미 정책적 인식 변화 등으로 제조기지·거점으로서의 투자진출 편익이 거의 없어, 진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9년에는 대선, 총선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투자 진출에는 부적절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대외협력사업 대부분이 올스톱

○ 각종 비리스캔들로 다수의 고위인사가 처벌을 받으면서 보신주의가 팽배, 개발협력 차관/원조금이 더디게 집행되거나 오히려 방치되는 것이 현실

○ IDB(미주개발은행), WorldBank(세계은행),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자금 투입 사업들도 국회 통과 마저 안되어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많은 국제기구, 기관들이 과테말라와의 경협 의제를 축소하거나 중점과제를 사회개발, NGO 협업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개발협력 관련 유망 분야

○ 공공치안 분야 경험 전수 및 관련 인프라

- 한국과의 치안협력 관련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관련장비* 도입 가능성 있음

  * 신속배치시스템(IDS), GPS시스템 활용 순찰차신속배치시스템 등

○ 중소기업 수출 진흥 경험전수

- 중미 대부분 국가들이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 육성 및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정책 벤치마킹에 상당한 관심 표명
- 더불어 무역투자진흥기관 설립*에도 관심이 있어 해당분야 노하우 및 자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출진흥기관(PRO-GUATEMALA) 설립을 위한 법안(Iniciativa de ley 5500) 발의(2018. 9월)

Ⅲ 진출전략

- 한-중미 FTA 발효를 전후로 중미 통합시장 관점에서의 마케팅 강화 필요
  - 중미지역 FTA 붐업/홍보사업, 중미지역기구 협업사업 등
- 식품, 화장품 등의 한류 우수 소비재 수출 사업 추진
  - 대형유통망 입점, 팝업스토어, KSF 홍보사업 등
- CABEI 회원국 가입 대비 MDB 차관 활용 사업 개발, 프로젝트 수주 강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과테말라 지역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경공업 발달로 원부자재 수요 다대
- 달러 강세 기조 하 안정적 환율시장 유지 기대
- 중미 제1의 소비재 시장이자 경유(經由) 시장

약 점(Weakness)
- 추가 참여 위한 한-중미FTA 재협상 난항
- 정부사업 및 각종 행정절차 불확실성 다대
- 과도한 美의존경제/미국 반이민정책에 취약

기 회(Opportunity)
- 해외 가족송금 지속 증가/내수 소비력 증대
- 중미 3국(과·엘·온) 관세동맹 출범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회원국 가입 이슈
- 2019년 한-중미 FTA 발효 기대

위 협(Threat)
- 중국산 시장점유율 증가세 위협적
- 봉제업 경쟁력 약화로 부자재 수입 위축
- 2019년 대형선거(대통령·국회·지자체) 이슈로 정치적 불안정 심화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FTA 수혜품목, 우수상품 시장개척 • 식음료·화장품 등 소비재시장 진출 강화	FTA 붐업·홍보사업 추진
ST 전략 (강점 활용)	• 중산층 新수요를 겨냥한 유망 소비재 발굴 • 플라스틱, 화섬 등 경공업 원부자재 시장 개척 • 현지정부 육성산업 협력분야 투자진출 강화	중미통합시장 관점 마케팅사업 추진
WO 전략 (기회 포착)	• 중미시장 전체 대상의 마케팅사업 추진 • 중미6개국 온라인플랫폼 마케팅사업	경쟁력 우위 한류 소비재 진출 지원
WT 전략 (위협 대응)	• 개발협력 연계 맞춤형 G2G사업 개발 • 전대금융, 개발협력 차관 활용 인프라사업 참여	협력 유망분야 투자진출 강화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19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한-중미FTA 발 효	◈ 중미지역 FTA 붐업/홍보 사업 ○ 수혜품목 맞춤형 사절단, 중미진출전략 설명회 등 추진
중미통합 가속화	◈ 중미 통합시장 관점의 마케팅사업 심화 ○ 중미지역 무역관 공동, 중미지역기구 협업 사업 적극 개발
소비재 붐 업	◈ 경쟁력 우위의 한류 소비재 진출 지원 ○ 화장품, 식료품 관련 대형 유통망 입점, 홍보사업 추진

FTA·시장통합 이슈를 활용한 중미 틈새시장 개척

가. 한-중미 FTA 붐업/홍보 사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미국·멕시코·콜롬비아·중미 등 인근 FTA·관세동맹국 수입 비중이 66.2%(2018.상반기) 육박
- 특히 FTA 체결국들의 수입액 증가세가 未체결국 평균을 크게 상회

ㅇ한-중미 5개국(과테말라 제외) FTA발효 시 한국산 대체재를 찾는 수요 증가 예상
- 한-중미 FTA는 2018년 2월 정식서명을 마쳤으며, 엘살바도르는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2018. 6월)
- 중미국 대부분 한국과의 FTA를 반기는 입장으로 2019년 내 발효 예상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수입 증가로 한국산 강세품목의 감소세 뚜렷

- 현지 생산이 활발한 경공업 원부자재(화학제품, 플라스틱, 식품첨가제 등) 수요 진작 필요

○ 중미 최대시장 과테말라는 한국과의 FTA 편입 목소리 커지고 있는 상황

- 수입업 및 농·수산업 관련 수출업계에서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한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찬성여론 조성 필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산업재) 중미 북부 3개국 고수요 품목 맞춤형 사업 추진

- 임가공업이 발달한 중미 3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원부자재 핀포인트 마케팅사업, 무역사절단
- 특히 수요가 많은 식품 첨가물, 섬유, 플라스틱 원부자재 인콰이어리 발굴 집중

○ (재협상 분위기 조성) 한-중미 FTA 붐업 상품전 개최

- 중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온라인), 수혜업종 분과별 1:1 상담회, 유망품목 상품전, 정부조달설명회 등
  * SIECA·KOIMA 연계 중미6개국 주요수출입업체 대상의 '한-중미FTA 화상상담주간' 개최

유망품목

☞ (산업재) 섬유(원사·원단)류, 플라스틱 원부자재, 식품 첨가물 등 원부자재류
☞ (소비재) 기초화장품, 건강음료, 간편식품류

나. 중미 통합시장 관점의 마케팅사업 심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역사적으로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중미시장 통합 움직임 지속
- 중미공동시장(CACM, 1960), 중미통합체제(SICA, 1993), 중미공동관세체계(SAC, 1993), 중미자유통행협정(CA-4, 2006) 등
  * (관련기구) 중미의회(PARLACEN),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3국간 중미 북부 관세동맹 공식 출범(2018.8월)

ㅇ민간을 중심으로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기반으로한 느슨한 형태의 시장 단일화 흐름 관찰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지역통합 기류에 따라 자본 및 사업 모델의 역내 다국적화 관찰

- 역내 전통 부호는 유통망의 다국적화를 주도하고, 제조 자본은 국경을 넘나드는 GVC 구축
  * (유통) 엘살바도르 POMA가문, 중미 전역 쇼핑몰·자동차딜러십 보유 / (GVC) 중미국간 원사·원단 → 봉제업 수직계열화 등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편입 완료

- 2018.8월 EL CORINTO 정상회담에서 엘살바도르 포함 3국 관세동맹 출범 발표

  * 중미 북부 3개국간 온라인통관간소화시스템 FyDUCA 도입 완료로 재화 이동 완전 자유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중미 다국적(Multilatina)기업 대상 마케팅 협력 강화

- 중미지역 전반에 걸쳐 영업망을 확보한 기업들을 발굴, 마케팅에 적극 활용

  * LatinWeek주간, 한-중미FTA 붐업 한국상품전(비준 시 추진) 전용상담관 운영

○ 한국 중소기업-중미 6개국 유망기업 연계 온라인 마케팅사업 추진

- SIECA의 REDCA* 온라인플랫폼과 연계, 한-중미 FTA 화상상담주간 개최(2018.11월 MOU 체결)

  * 중미 중소기업의 교역 증진을 위해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이 개발한 온라인플랫폼(www.redca.sieca.int)

유망품목

☞ (산업재) 자동차타이어, 자동차부품, 철강, 건설중장비, 플라스틱 원부자재 등
☞ (소비재) 기초화장품, 건강음료, 간편식품류

다. 경쟁력 우위의 한류 소비재 진출 지원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식료품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품목으로 토종기업의 현지 생산, 주변국 수출 활발
  - 로컬브랜드제품(저가) 해외브랜드 라이센스제품(중고가) 병행 생산하는 곳이 다수

ㅇ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내 한국산 화장품 수요 증가 추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지 유통망의 현지인 대상 한국산 소비재 판매 확산 추세

- 교포기업인의 시장개척 노력, 대형유통망 벤더들의 품목 다변화 시도 관찰

  * OKF 알로에음료, CJ Bibigo제품류, 농심라면, LOTTE 제품 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

○ 무역관의 홍보 노력 속 현지인들의 자발적 구매, 판촉 움직임 활성화

- 현지 식품전을 통해 우리 제품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한국산 식료품, 화장품을 소개하는 유력 인플루

언서도 등장

* 과테말라무역관, 현지 유력 인플루언서(www.instagram.com/yiyisosa92)와 공동으로 중남미 소비자 대상의 홍보 영상물 제작, 배포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교포유통망(식료품점)을 활용한 현지 식음료시장 진출

- 현지인들 입맛에 맞는 유망상품 선정에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후 대형 유통망 정식 입점을 위한 벤더로 활용

  * 다수의 교포 운영 식료품점이 영업 중이고, 일부는 대형유통망 납품으로 사업 확장 중

○ 유통망 연계 팝업스토어 입점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개

- 중미 최대 식품 전시회 Feria Alimentaria 한국관 참여 지속

  * 식료품 화상상담주간 운영 등을 통해 신규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연계성 강화

- 대형·전문 유통망 연계 팝업스토어 입점, 코리아세일페스타(KSF) 행사 정례화

  * K-Beauty 화장품 특화사업 추진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병행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건강음료, 가공식품(햇반·간편식),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 등

3. 한-중미(과테말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19년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제조업 육성 연계	◈ 현지정부 육성산업 및 글로벌가치사슬 협력분야 투자진출 강화 ○ 육성산업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진출 적합업종 투자 진출 지원
개발협력 수요 연계	◈ MDB 차관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개발, 수주 강화 ○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영향력 증대에 따른 역내 프로젝트 수주 호재 적극 활용

중미 현지기업과의 협력 진출, 개발협력 사업 공동 개발로 상호이익 창출

가. 현지정부 육성산업 및 글로벌가치사슬 협력분야 투자진출 강화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제조업은 과테말라 GDP의 18%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그중 식음료업이 44% 차지

○ 제2의 주력산업인 마낄라(임가공업)는 미국시장의 선호도 변화, 투자기업 혜택 축소, 지속된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 상실
-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모두 유사한 문제에 봉착

○ 중미 각국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진출 유망
- (GVC 예시) 멕시코-북미 자동차벨트 진출(DR-CAFTA, 중미-멕시코FTA 활용)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Post 마낄라(임가공)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먹거리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박차

- 과테말라정부는 차세대산업으로 제조업(식료품, 제약, 화공), 물류업(지역거점화), 서비스업(관광, BPO) 등을 육성하겠다는 장기계획 발표

* 꾸준한 인건비 상승으로 과테말라 임가공업 가격경쟁력이 이미 소실, 조속한 산업전환 필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국별 육성산업에 기반한 중소기업·중급기술 분야 협력 모색

- 봉제업 위주에서 탈피, 집중 육성분야(자동차부품·식품가공·포장분야) 및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수요와 매칭

  * 既진출 봉제·임가공업체의 업종전환 지원 사업(세미나·설명회) 병행

○ 중소기업 북미·중남미시장 진출기지 활용 지원

- 역내 원산지·공정 누적조항을 적극 활용, 우리 중소기업의 미주지역 글로벌가치사슬 편입 지원

  * 과테말라 진출 한국계 의류업체 북미 Preview in NewYork 참가(협업)

  * 온두라스 자동차전장·하네스 산업단지-멕시코 KAP 연계사업(예시)

유망품목

플라스틱류, 식품첨가물, 식품포장재, 자동차부품 등

나. MDB 차관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개발, 수주 강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주요 MDB의 중미지역 예산 집행 규모
- (집행실적) 미주개발은행(IDB) 60.2억 달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259억 달러(누계기준)
- (2017년 승인금액) IDB 15억 달러, CABEI 19억 달러 등

ㅇ 한국의 중미지역 EDCF 집행액 증가(2012년 22.4백만 달러→2014년 40.0백만→2016년 60.4백만)
- (2016년 집행실적 상위국) 니카라과 25.2백만 달러(1위), 도미니카공 10.5백만(2위), 온두라스 10.2백만(3위) 등(총 60.4백만달러 집행)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수출입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3억달러, 과테말라 1위 산업은행(BANCO INDUSTRIAL)에 3천만달러 전대금융 크레딧라인 제공 개시(2017.4월)

○ 기획재정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회원국 가입신청서(IRL) 제출(2018.1월)

- 가입 시 자본금 450백만 달러, 지분율 7.58%의 역외회원국 2위 영향력 확보

□ 진출전략

○ CABEI 금융 연계 중미 공공조달 유망품목 G2G 사업 개발

- 유망품목* 대상으로 금융과 연계한 G2G 사업을 선제안, 중미 조달시장 진출 신모델을 정립하고 주변국으로 전파

  * (유망품목) 방산물자·대테러장비, 전자여권, NID, 전자정부시스템, 의약품 등

○ MDB 개발펀드, EDCF·전대금융 활용 프로젝트 수주 집중

- KIF자금(EDCF), 전대금융을 활용하여 역내 공급자 금융 프로젝트에 대응
- 유망사업 타당성조사에 기술협력사업(TC) 신탁기금을 제안, 사업 수주로 연계

〈한국의 중미지역 차관 연계 주요 프로젝트 추진 사례〉

ㅇ 대상국 : 니카라과(중미 타국가는 최근 승인사례 없음)
ㅇ 승인사업(2017년 2건)
① 지방 태양광에너지 공급사업(2차)
- 2017년 신규 승인 사업으로 동부 리오산후안주 153개 마을, 총용량 2,070kW규모 독립형 태양광발전설비 건립사업
- 전력계통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 위한 EDCF 지원 사례

② 블루필드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CABEI)
- 블루필드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펌프장 등 위생 인프라 구축 지원 합의(2017. 1월)
- 1억달러 규모 EDCF-CABEI 협조융자 퍼실리티 최초 활용 사례

자료원: EDCF 연차보고서 2017(www.edcfkorea.go.kr, 2018. 11년 기준)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2202	수입관세율(%)	15
음료	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84.81 42.01	대한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5.71(6.73%점유) 2.35(5.58%점유)
	선정사유	한국산 제품수요 급등품목		
	시장동향	- 주류, 탄산음료, 넥타, 생수제품 현지생산, 경쟁 치열 - 스포츠드링크, 건강음료 위주로 수요 증가세		
	경쟁동향	- 멕시코, 중미국 모두 생산하며 역내교역 활발 - PEPSI, AMBEV 라이센스 보유 CBC社가 역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		
	진출방안	- 알로에베라, 코코넛 등 현지 미생산 제품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 - 에너지드링크, 캔커피 등 기진출 아이템 외 건강음료(차, 다이어트음료) 등 틈새시장 개척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2		8708	수입관세율(%)	10 (단, 8708.30.20는 0%)
자동차부품	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140.88 73.70	대한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2.86(2.03%점유) 1.84(2.50%점유)
	선정사유	- 한국산차량(신차·중고차) 꾸준히 증가 - 애프터마켓제품 및 자동차유지관리 부품수요 동반 성장 중		
	시장동향	신차시장 기준 기아차(2위), 현대차(3위) 등 높은 한국산 선호도 지속		
	경쟁동향	저가 중국산, 대만산, 멕시코산이 시장 장악		
	진출방안	중미 전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3		8507.10.00	수입관세율(%)	15
자동차배터리	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34.73 20.03	대한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4.28(12.33%점유) 3.48(17.35%점유)
	선정사유	미국·멕시코산은 무관세품목임에도 한국산이 더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시장 인식 지배적		
	시장동향	- 멕시코산(63.5%)에 이어 한국산(12.33%) 시장점유율 2위 - 2017년 기준 전년대비 11.37%의 고속 성장세 기록('18.5월 누계 기준52.16% 증가)		
	경쟁동향	MAGNUM(현지), LTH, BOSCH, Interstate, AC Delco, Solite 등 유명브랜드 각축장		
	진출방안	- 한-중미FTA 발효국 우선 진출(엘살바도르 국회 비준 통과, 2018. 6월) - 중미 전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4		3004	수입관세율(%)	5
의약품	수입액('17/US$백만) ('18.5월/US$백만)	503.32 248.58	대한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1.70(0.34%점유) 1.33(0.53%점유)
	선정사유	- 높은 빈곤층 비율로 인해 공공보건 분야의 의약품 재고가 항시 부족 - 따라서 정부 조달 대기수요 다대(수입규모 4위 품목)		
	시장동향	공공부문 조달시장 기준 10대 조달업체의 낙찰규모는 2억불 내외		
	경쟁동향	Bayer, Abbot 등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 71개 내외의 의약품 업체가 영업 중이며, 일부는 현지 생산공장 운영		
	진출방안	- 천연약재, 소아용 의약품, 항암제, 항생제 등 고경쟁력 제품 위주 시장 진출		

		- 공공조달 시장의 경우 개방계약(Open Contract)이 일반적으로 현지 낙찰 경험이 많은 유력 조달업체와의 파트너십 중요 - 2018. 8월부 도입된 보건등록용 법률대리인 위임서가 독점권 효력을 지녀 사전 보호장치 마련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5		1902.30	수입관세율(%)	5
인스턴트면류	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1.05 0.57	대한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0.05(4.62%점유) 0.01(0.01%점유)
	선정사유	최근 3년간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 꾸준한 성장세 기록(2016년 기준 21류 18.9%, 19류 8.9% 등 성장)		
	시장동향	한국산 가공식품 수요층 확산 추세(월마트 등 대형유통망에 라면, 만두 등 한국산 가공식품 판매)		
	경쟁동향	- 중미, 멕시코 등 인근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절대적 비중 차지 - 현지 업체가 SAMYANG 브랜드(도용 추정)로 컵라면 생산, 유통 중이며, 자생브랜드 다수 존재		
	진출방안	교포유통망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하되, 차별화된 맛과 종류로 틈새/프리미엄시장 진출에 집중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6		3303/3304 3307.90	수입관세율(%)	5*·15% (*3307.90.10)
화장품	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122.2 63.3	대한수입액('17/US$백만) ('18.6월/US$백만)	0.114(0.1%점유) 0.040(0.1%점유)
	선정사유	최근 들어 K-Beauty에 대한 여성소비자 관심 증대		
	시장동향	기초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산을 찾는 소비자, 유통망 확산		
	경쟁동향	- 현지 생산업체(FLUSHING)가 있으며, 페루계 화장품기업인 BELCORP 산하브랜드(ESICA, L'BEL, CYZONE 등) 강세 - MUMUSO, MINISO 등 한류편승브랜드 진출 중		
	진출방안	- 전문유통망을 활용하되, 진출 초기 인플루언서 마케팅 투자 필요 - 현지법상 사실상 독점권에 준하는 위임장이 필요한 바, 각종 서류 요청에 개방적 접근 필요 - 과테말라무역관 팝업스토어, KSF사업 참여 등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수출유망품목]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교포기업인을 중심으로 한국계 프랜차이즈 도입 수요 존재 중미 내 최대 프랜차이즈시장이며, 외국계 브랜드가 80%이상을 차지하는 개방시장
	시장동향	본스치킨 기진출(교포사업가 운영)
	경쟁동향	미국브랜드(TACO BELL), 현지자생 브랜드(Pollo Campero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성업 중
	진출방안	- 현지 인지도 높은 한식 브랜드 위주 아이템 선정 - 현지 프랜차이즈 대기업 보다는 교포기업인(5천명)을 활용하여 진출 필요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Feria Alimentaria 2019 연계 식음료 유통망 진출 사업

○ 중미 최대 식료품 전시회 한국관 운영 및 LA TORRE 등 대형유통망 입점 추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중소기업 중미 신시장개척 1:1 화상상담회 등 병행

  * 2017년 첫 참여 이후 화상상담주간(2017), 인플루언서 동영상 포스팅(2018) 등 세부사업 차별화

〈Feria Alimentaria 2018 연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행 결과〉

① 협업인플루언서 소개

(성명) 지셀 페르난다(YISSEL FERNANDA) / (계정) www.instagram.com/yiyisosa92

② 시행내용

- 한국산 간편식 3종(수프, 만두, 떡갈비류) 별 유래, 구입방법, 현지인 입맛에 맞는 활용법 등으로 구성된 유투브 동영상 생산
-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로워 대상으로 동영상을 전파하는 한편 전시회 기간 FERIA ALIMENTARIA 한국관 방문 홍보 실시(영상물 8건, 사진 포스트1건 게재)

③ 유투브 동영상 링크

- 떡갈비제품 소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8uCvcCdmF4
- 수프제품 소개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kp1CAVJ-gsE&t=20s
- 만두제품 소개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xQJzy2DsLH4&t=143s

□ 중미 K-BEAUTY 화장품 팝업스토어 사업

○ 중미 최대 화장품 전문유통망 연계 K-BEAUTY제품 입점 사업

- 중미 유력 유통망(SIMAN 또는 BEAUTY DEPOT) 연계 온·오프라인매장 상설 입점, 대형쇼핑몰 팝업매장 운영 추진

  * 한국 화장품기업 7개사, BEAUTY DEPOT社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성사(2018년)

○ KOREA SALE FESTA 주간 연계 K-BEAUTY 화장품 세일 행사

- BEAUTY DEPOT 온라인몰(www.beautydepot.com.gt) 내 국산화장품 KSF 판촉행사 정례화

  * 각종 할인행사(1+1, 할인·서비스쿠폰 등), 유명인사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한 판촉활동 전개

□ 한-중미FTA 발효 대비 붐업 사업

○ 한-중미 FTA 붐업 BUYKOREA-REDCA 화상상담 주간

- 중미 6개국 수출입업체-한국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주선 및 중미 진출전략 (온라인) 설명회(SIECA 협업)

  * 사업 추진을 위한 KOTRA-SIECA MOU 체결(2018.11월)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대통령·부통령선거	2019년 6·8월 (둘째 또는 셋째주 일요일)	1차(6월) 선거로 대선후보 2명 선출 후, 2차(8월) 선거를 통해 최종 당선자 확정
국회의원 선거(동시선거)	2019년 6월 (둘째 또는 셋째주 일요일)	총 의석수 : 170석
중미의회 국회의원 선거(동시선거)	2019년 6월 (둘째 또는 셋째주 일요일)	배정의석수 : 20석
지방선거(동시선거)	2019년 6월 (둘째 또는 셋째주 일요일)	지자체 단체장수 : 340명
UN 과테말라 반면책특위(CICIG) 활동기간 종료	2019년 6월 (둘째 또는 셋째주 일요일)	정치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사안

주: * 과테말라 선관위(TSE)에 따르면 정확한 선거일은 아직 미정(2018. 11월 기준)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중미 FTA 재협상	연중(미정)	한-중미FTA 공식 비준 후 진행 예정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발표	2019년 6월	
2020 최저임금 발표	2019년 12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 행사 : 대형 전시회, 포럼 등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PPAREL SOURCING SHOW 2019	2019. 5. 14-16	
FERIA ALIMENTARIA 2019	2019. 9. 2-4	
FERRET EXPO 2019	2019. 11. 7-10(잠정)	

* 맨 끝에 작성자(해외, 국내 모두) 기입해 추후 고객문의 대응

담 당 자

과테말라무역관 이훈 직 책 관장
Tel +502-2298-0000(ext.101) Email leeh818@kotra.or.kr

본사 시장조사팀 직 책
Tel + Email

2019 국별 진출전략

과테말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